
한국 대학생의 독해지문을 활용한 영어시제 습득

Korean College Students' Acquisition of English Tense through Reading

김경훈
광주여자대학교

Kyung-Hoon Kim(khkim@mail.kwu.ac.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대학생들의 영어 시제습득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영어 시제습득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영어 능숙도에 따라 영어 시제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 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소재의 C 대학교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77명의 학생들이며 실험집단 39명이고 통제 집단은 38명이었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영어 시제에 관한 40문제를 제시하였고 설문지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t 검정 방법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하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독해지문을 활용한 영어시제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하였고 그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다.

■ 중심어 : | 시제 | 능숙도 | 습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Korean EFL university students acquire an understanding of English tenses. To research this, we proposed two research questions of study as below. Firstly, what difference is there in English tense acquisition between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Secondly, what difference is there in the English tense acquisition according to English proficiency? The subject of a sample survey was a 39 student experimental group and a 38 student control group, total 77 students, who take English courses as a required subject at 'C' university in Gwangju. The data needed for this study was obtain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40 questions about the English tense. The data analyzing method was t-test through the statistics program SPSS 12.0.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s tense acquisition ability and the control group's, even though low group showed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tense acquisition ability. Studying English tense through reading led the students to be present in classes with interests, so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academic accomplishments than the control group.

■ keyword : | Tenses | Proficiency | Acquisition |

I. 서론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영어 교육에서 의사전달 기능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문법적인 요소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영어 문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의미 전달의 핵심인 동사의 시제(tense)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문법에 있어 시제의 중요성은 가장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와 관련된 문법 범주로서의 시제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제의 중요성을 강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시제에 대해 수업을 할 때, 의미론적 접근보다 동사의 형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지도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전히 시제에 관련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어의 시제들이 의미와 형태가 비슷하여 학습자들이 학습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쉽게 혼동하여 사용하는 시제를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 독해 지문 활용을 통한 영어 시제 학습이 영어시제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독해 지문 활용을 통한 영어 시제학습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따라 영어 시제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2.1 영어 시제의 정의

Jespersen(1924)[11]은 시제란 동사형식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간 관계의 언어적 표현' 이라고 정의하면서, 많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이 시제 형식

들은 시간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라는 언어의 시제 형식으로는 동사형태 자체에 의하여 구분되는 두 개의 고유 시제형인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으며 시제구의 형식으로 완료형과 대과거형을 인정한다. 미래시제형과 미래완료형은 영어의 시제체계에서 보통 인정하는 것이 관계이나 그 형태와 기능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Lyons(1968)[14]는 시제를 생성의미론의 관점에서 시제를 하나의 상황 범주로, 비 상황 범주인 상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문장에서 언급된 상황(사건, 동작, 상태)의 시간과 발화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시제라고 했다. 또 Leech(1994)[13]에 의하면 발화하는 순간 이외의 다른 때의 상황의 실제적 존재와 발화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상황의 심리적 존재 사이의 연관성을 시제라고 보고 있다. 즉, 발화 순간에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 행위 상태 사건을 포괄한다는 말은 현재 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폭이 과거와 미래에 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한다.

Poutsman(1926)[15]은 좀 더 체계적으로 시제라는 문법 현상을 다루고 있다. 그는 세 가지의 주요한 시간 영역의 구분에 따라 일차 시제로서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각각의 시간 영역 자체가 분기점이 되어 구분되는 이차 시제로서 전과거, 후과거, 전미래, 후미래가 있으나 영문법에서 후미래의 경우 특정 시제형태가 없으며 전과거는 과거 완료시제형과 같고 전미래는 미래완료시제형과 같다고 한다. 그밖에 완료시제 및 과거 미래시제와 과거미래완료 시제도 인정하고 있다.

Curme(1931)[7]의 경우 네 개의 절대시제(absolute tense: Present, past, present perfect, future)와 두개의 상대 시제(relative tenses: past perfect, future perfect)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절대시제는 화자가 어떤 다른 행위를 참조하지 않고 말하는 순간의 관점으로부터 보는 것을 표출 하고 있다. 상대시제는 선행하는 절대시제와 관련하여 시간을 표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 Comrie(1985)[6]는 시제를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로 구분하는데 절대 시제는 시간 속에 상황을 위치시키기

위한 준거점이 현재 시간인 반면에 상대시제는 상황의 위치에 대한 준거점이 반드시 현재시간이 아니라 문맥에 의해 주어진 어떤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2 영어 시제의 체계

Jespersen(1931)[12]은 영어의 시제를 과거와 비과거의 2시제 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시제를 굴절 형태소에 제한하여 정의를 내린다. 즉 시제를 문장성분으로 여기고, 시제표지를 하나의 통사적 자질로 본다. 그리고 will을 서법동사로 간주해 미래시제를 시제에 넣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hafe(1970)[5]은 미래시제가 시제가 아닌 서법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래시제는 본질적으로 비실현 서법일 뿐만 아니라 의무적이며 소망적 서법과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Comrie(1985)[6]도 미래시제가 미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예상을 하므로 서법 문장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 (1) a. It will rain tomorrow.
- b. It may rain tomorrow.

(1a)는 현재 순간에 유지되는 상태지만, (1b)는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가능 시제에 대한 주장이다. 그러므로 조동사 will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므로 미래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시제를 굴절 형태소에 제한하여 과거-비과거의 2시제 체계로 분석하는 것보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시제 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Reichenbach(1947)[17]에 의하면 시간표시는 세 가지 시간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발화의 행동이 시작되는 시각인 발화시점(point of speech), 발화의 내용 속에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시각인 사건의 시점(point of event), 그리고 문장이나 절에 의해서 지시되는 시각인 기준시점(point of reference)을 기초로 하여 이전, 이후, 동시적이거나의 관계를 통해 9시제 체계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 (2) a. John had left the store.
- b. ---- || ---- || ---- || ---->
- E R S

여기에서 E는 사건시점, R은 기준시점 그리고 S는 발화시점을 나타낸다. (2)에서 사건 시점은 John이 떠난 시점이고, 기준 시점은 그 시간까지 John이 떠난 시점이고, 발화시점은 실제로 이 문장이 발화되는 순간이다.

이와 같이 시제 구분을 S에 관련된 R의 위치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또 R에 관련된 E의 위치에 따라 전시제(anterior tense), 단순시제(simple tense), 후시제(posterior tense)로 나누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RE E E S.RE E E RE E

Curme(1931)[7]은 네 개의 절대 시제(absolute tenses)와 두 개의 상대시제(relative tenses)를 인정하고 있다. 절대시제는 과거, 현재, 완료, 미래 시제를 말하며 화자가 어떤 다른 행위를 참조하지 않고 말하는 순간의 관점으로부터 보는 것을 표출하고, 상대시제는 과거완료와 미래완료를 말하며 선행하는 절대시제와 관련하여 시간을 표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행형은 상이라는 범주가 갖는 여러 상적인 의미들 중 지속상을 갖는 것으로 시제라는 범주에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 past perfect | future perfect |
|--------------------------------------|----------------------------------|
| (4) ----- ----- ----- ----- | ----- ----- ----- ----- |
| | past present present future |
| | perfect |

Quirk은(1985)[16]은 전통적으로 제시된 6시제 혹은 12시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2시제 체계인 현재와 과거만을 시제로 인정하며 미래 시제형은 단일형이 없다는 이유로 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완료형과 진행

형은 복합 정형동사구(complex finite verb phrase)라 하여 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시제는 동사의 굴절에 의해 현재와 과거로 나뉘고, 상에는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는데 동사의 사용에 있어 상이 없을 수도 있고, 진행과 완료가 결합한 완료진행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3 영어 시제에 관한 연구

Weist(1991)[18]은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고 있는 폴란드 성인과 2살 반에서 6살 반에 이르는 미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폴란드 성인 집단은 영어 습득별로 어린이들은 연령별로 각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문장-그림 연결 과업을 사용하는 이해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는데 첫 번째, 절대적 위치(과거/미래)와 상대적 위치(before/after)대조로서 L1학습자들은 절대시제 대조를 먼저 이해하고 상대시제 대조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반면 교수 받은 L2학습자들은 초기부터 절대적, 상대적 영역을 모두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시제와 상의 습득에 관한 것이었다. L1학습자는 발달단계의 초기에서부터 시제와 상의 대조를 모두 이해하였다. 그러나 L2학습자들은 시제를 상보다 먼저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Hinkel(1992)[10]은 영어 학습자의 모국어 배경에 따라 시간과 상에 관련된 개념이 각기 다를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영어 시제의 시간과 상을 습득하는데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연구하였다. 130명의 ES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결과 이들은 영어의 시간과 상의 개념을 원어민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모국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답률을 나타내어 모국어에서의 시간과 상의 개념이 영어의 시제와 그 의미의 습득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은미(1994)[1]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문장의 시제를 습득해 나가는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중간언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같은 현재형이라 하더라도 보편적 진리, 현

재의 상태 및 동작을 나타내거나 미래를 대응하는 용법에서 정답률이 높았고 미래 대응의 현재나 중계방송의 현재형은 정답률이 낮았다. 이 결과는 단순과거형, 진행형, 완료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제 유형이라도 용법에 따라 정답률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유경(1994)[2]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의 시제와 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식능력과 사용능력이 높았다. 즉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시제와 상에 관한 인식 및 사용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두 집단 모두 사용능력보다 인식능력이 더 높았으며, 셋째, 인식능력과 사용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언어형태를 근거로 시제와 상을 쉽게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제사용에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능력과 사용능력에 있어 집단 내 시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두 집단의 시제별 습득정도의 순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진행과 단순과거의 인식도는 높으나 단순현재와 현재완료의 인식도는 낮았고 단순현재와 단순과거의 사용도가 높으나 현재완료진행과 과거완료진행의 사용도는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III. 영어 시제 지도의 실제

실험집단에서는 독해 지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영어 시제 습득에 대한 지도 방안을 본 수업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When a language ceases to change, we call it a dead language. Classical Latin ③is a dead language because it ④has not changed for nearly two thousand years. The change that ⑤is constantly going on in a living language can be most easily seen in the vocabulary. Old words die out, new words are added, and existing words change their meaning. Much of

the vocabulary of old English ①has been lost and the development of words to meet new condition is one of the most familiar phenomena of our language.

독해지문에서 시제와 연관된 단어들에 줄을 치게 하고 그 구문에 대해 분석하고 왜 그 시제가 사용되었는지 또 예문과 같은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다른 상황들에 대한 예문들을 열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위 글의 ①는 현재시제를 사용하였으며 현재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의 동작, 상태, 습관에 주로 사용하며, 불변의 진리나 속담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 (5) I see a bird in the tree.
She teaches Korean.
I get up at seven every day.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①의 경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으며 현재완료시제는 과거의 특정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험 결과 계속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 (6) I have visited Gwang-ju many times.
I have lived here for seven years.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He has gone to Canada.

②의 구문은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주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그 동작을 멈추거나 계속할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고 상태, 감정, 지각, 인식, 소유 등의 의미가 있는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 (7) He is swimming now.
*She is resembling her mother.
*I am loving you.

- *I was seeing a bird.
- *I am knowing the fact.
- *I am having the car.

③구문은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이며 형태는 have been + p.p이다. 예를 들면,

- (8) I have been taught by my brother.
I have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English has been studied for five years by me.

위와 같이 독해 내용과 접목시켜 시제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은 지루한 문법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독해내용에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시제 습득을 할 수 있었다.

통제집단의 경우는 전통적인 문법 수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영어 시제에는 12시제가 있으며 항상 현재시제만 사용해야 할 경우와 과거시제만 사용해야 할 경우 들을 설명하고, 완료시제와 진행형 시제에 대해 설명한다. 항상 현재시제만 사용해야 할 경우는 현재의 동작, 상태, 습관, 불변의 진리, 속담들이 있으며 특히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경우에는 미래시간을 대신해서 반드시 현재시간을 쓴다.

그리고 완료시제는 have+pp로 나타내며 특정 시점에 서 어느 일정 시점 까지 지속 영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경험, 계속, 완료,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진행형의 경우는 be+ing로 나타내며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며, '주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그 동작을 멈추거나 계속할 경우에 사용된다. 라고 학생들에게 시제에 관한 문법적 설명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IV. 연구 설계

1. 실험대상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사립 대학교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39명의 실험집단과 38명의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류

구분	수준			성별	
	상위	중위	하위	남	여
실험	11	13	15	19	20
통제	12	14	14	20	18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연구 대상자들의 교양 영어 시험 30문항 성적을 토대로 하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검사

구분	N	M	SD	t	p
실험	39	21.41	3.28	.053	.792
통제	38	20.94	3.43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교양 영어 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므로 두 집단은 실험을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 능력이 비슷한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집단은 독해 지문을 통한 영어 시제학습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수업을 실시하였다.

2. 실험도구

시험은 4개월 동안 독해지문을 활용한 영어 시제 학습을 시행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어시제에 관한 이해력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시험 문제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내용은 영어 시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총 40문항 이었으며 각 문항의 배점은 1점으로 하였다.

3. 실험 분석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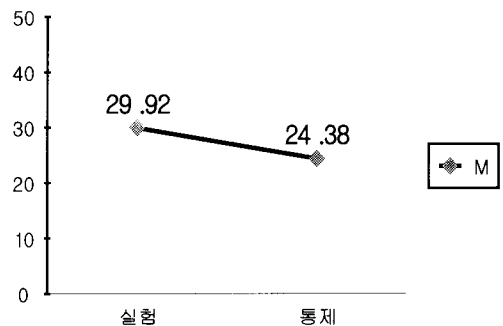
독해 지문을 활용한 영어 시제 지도의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평균 차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 독해 지문 활용을 통한 영어 시제학습이 영어시제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표 3. 실험 통제 집단간 영어시제 습득차이 검증

	N	M	SD	t	p
실험	39	29.92	3.62	2.383	.000
통제	38	24.38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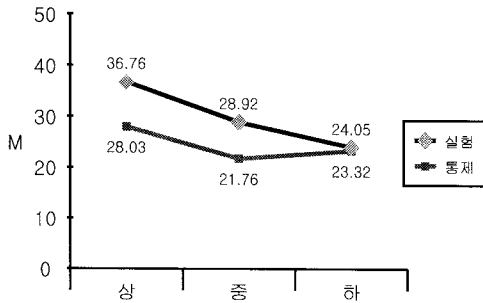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례수는 각각 39명과 38명 이고 실험집단의 득점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이 29.92, 표준편차 3.62 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이 24.38, 표준편차 2.83으로 실험집단의 평균이 5.54 더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독해 지문을 이용한 영어 학습이 영어 시제 습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연구문제 2 : 독해 지문 활용을 통한 영어 시제학습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따라 영어 시제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표 4. 실험 통제 집단간 수준별 시제습득 차이검증

수준	집단	N	M	SD	t	p
상위	실험	11	36.76	3.86	3.86	.000
	통제	12	28.03	6.18		
중위	실험	13	28.92	3.35	2.96	.000
	통제	14	21.76	8.12		
하위	실험	15	24.05	3.12	1.96	.093
	통제	14	23.32	7.19		



영어 능숙도에 따른 상위, 중위, 하위 집단의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위 집단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각각 36.26과 28.03으로 7.23의 차이를 보였으며 독해 지문을 통한 영어 시제 학습의 실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위 집단 학생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각각 28.62와 21.76으로 6.86의 차이를 보였으며 독해지문을 통한 영어 시제 학습의 실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집단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각각 24.86과 23.32으로 0.73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독해 지문을 이용한 영어 시제 학습의 경우 상위, 중위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하위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법을 학습하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 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독해 지문을 통한 영어 학습이 영어 시제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영어 능숙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밝히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효과적인 영어 시제 습득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대상과 실험도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기법은 주로 t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서론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귀무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영어 독해 지문을 통한 영어 학습이 영어 시제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독해 지문을 통한 영어 시제습득이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어 독해지문을 통한 영어 시제 습득 방안이 영어 능숙도에 따른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의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독해 지문을 통한 영어 시제 습득이 상위, 중위 집단의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성취도에는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하위집단의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독해 지문을 통한 영어 시제 습득방법은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높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독해지문을 통해 영어 시제학습을 할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시제를 습득하므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지루함을 별로 느끼지 않았으며, 시험을 치를 경우에는 영어 문장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문제 풀이에 접근하였다. 그러므로 EFL환경에서의 문법학습도 문법에 대한 설명보다 많은 문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법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 시제 습득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그리고 영어 수준별로 나누어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인 외에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이 영어 시제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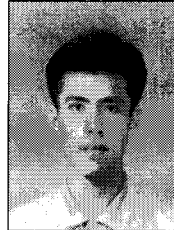
- [1] 김은미,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시제 습득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2] 이유경,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시제와 상에 관한 인식 및 사용능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3] 문용, *영문법 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4] 조성식, *영문법 개관 II*, 서울: 신아사, 1983.
- [5] W. Chafe, *Meaning and Structures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6] B. Comrie,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7] G. O. Curme, *Parts of Speech and Accidence*, Boston: D.C. Heath & Company, 1931.
- [8] G. O. Curme, *Syntax*, Boston: D.C. Heath & Company, 1935.
- [9] G. O. Curme, *English Grammar*, New York: Barnes and Noble Inc, 1947.
- [10] E. Hinkel, "L2 tense and time reference," *TESOL Quarterly*, Vol.26, No.3, pp.557-572, 1992.
- [11] 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24.
- [12] O. Jespersen,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V, Syntax*,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31.
- [13] G. N. Leech,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Ltd, 1994.
- [14] J. Lyons,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15] H. Poustma,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Groningen: Noordhoff, 1926.
- [16] R. Quirk, S. Greenbaum, G. Leech, and Startvik,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1985.
- [17] H. Reichenbach,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47.
- [18] R. M. Weist, H. Wysoka, and P. Lyytine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temporal system," *Journal of Child Language*, 18, pp.67-92, 1991.

저자 소개

김 경 훈(Kyung-Hoon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
과(문학사)
- 2002년 8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
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
과(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 교육, 멀티미디어